

해녀마을지정과 생태 박물관의 가능성¹⁾

좌혜경(해녀박물관)

1. 해녀 생업문화의 전승 보존의 필요성

제주의 해녀들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정치적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만 분포하는 여성 나잠업이라는 특이한 직종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아마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

현재 제주전역의 어촌계에 속해 작업에 임하는 해녀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젊은층의 잠수 작업 기피에 따라 해녀 생업의 단절로 나타나는 해녀들 문화의 소멸에 대한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다.

1970년대의 해녀 수는 14,143명으로 조사되었으나 1980년에는 7,804명으로 급감하였고 2008년에는 5,244명으로 30~49세는 263명으로 전체 40대 미만은 5.0% 정도다. 50대 이상이 95.5% (4,981)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10년 이후면 작업상황이 크게 변화되고 해녀들의 생업과 문화의 변화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바다 어장과 작업, 어촌계 조직, 공동체의 변화에 따른 해녀들의 지역사회에서 역할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와해 등 여러 변화추정이 가능하다.

해녀공동체에 의해 이끌어가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생업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 문화현상 전반인데 생업 기반과 함께 해녀들의 문화가 잘 보존된 곳을 해녀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환경과 생업 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필요하다.

근래에는 해녀 생업 문화의 존속과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각각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관련 생태마을 개념의 해녀 마을 지정과 함께 보존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촌 관광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귀포시 법환리인 경우는 몽고와의 격전지등 역사 유적과 함께, 해양문화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해녀를 중시하여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관광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문화역사마을」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해녀 체험장을 조성하고 해녀연습장인 해녀 체험관 시설, 담수용 용천수 이용, 태풍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녀 체험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또 해녀민속공연을 위한 공연장 조성 등은 어촌민속과 더불어 해녀마을로서 관광자원화에 한 몫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해녀 생업과 문화 전승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는 볼 수

1) 본고는 2007년 , 제2회 제주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존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임. 사진 자료는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임.

없다.

해녀마을 지정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해녀 공동체에 대한 진단과 잔존한 해녀들의 문화를 찾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녀 작업의 현황과 실태, 어촌계의 지역사회에 있어서 역할, 바다어장의 실태와 해산물의 생산량 및 어장관리, 해산물 채취와 관습, 물질 작업도구 이용 등 다양한 해녀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녀문화의 측면을 보면 해녀항일 운동, 해녀 공동체의 규약, 전통문화인 신앙(영등굿, 잠수굿, 해신당), 언어표현(해녀노래, 해녀항일가), 등의 요소는 제주민 삶의 전통과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내에서 해녀생업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해녀 문화가 잘 남아있어서, 해녀 생태마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찾아 지역적 특성을 살피면서 생태박물관의 가능성도 추적하고자 한다.²⁾

그것은 현존하는 해녀의 생업과 함께 지속적인 해녀문화의 전승보존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마을의 발전적 형태로서 생태 박물관

생태 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 활동에 더하여 일정한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어느 지역, 일정 영역에서 그 곳에 존재하는 유산이나 무형의 기억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박물관 활동의 중심이 되고 유산의 현지보존을 중시한다. 생태박물관은 한마디로 지역사회가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채워진 열린 박물관이다.³⁾

또 지역 주민이 박물관의 중심이며 박물관의 관리자인데 박물관의 내용은 현지와 관련 있는 모든 유·무형의 모든 지식 전반이고 문화유산이다.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y Riviere)는 생태박물관 곧 에코뮤지엄은 '지역사회 사람의 생활과 그 자연환경·사회 환경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 보존하고 육성하여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사회적 변화에 따라 훼손되는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통적인 박물관의 형태와 개념에 대한 반성의 조류로 등장하여 그 발전과정에서 확장된 의미의 환경과 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박물관의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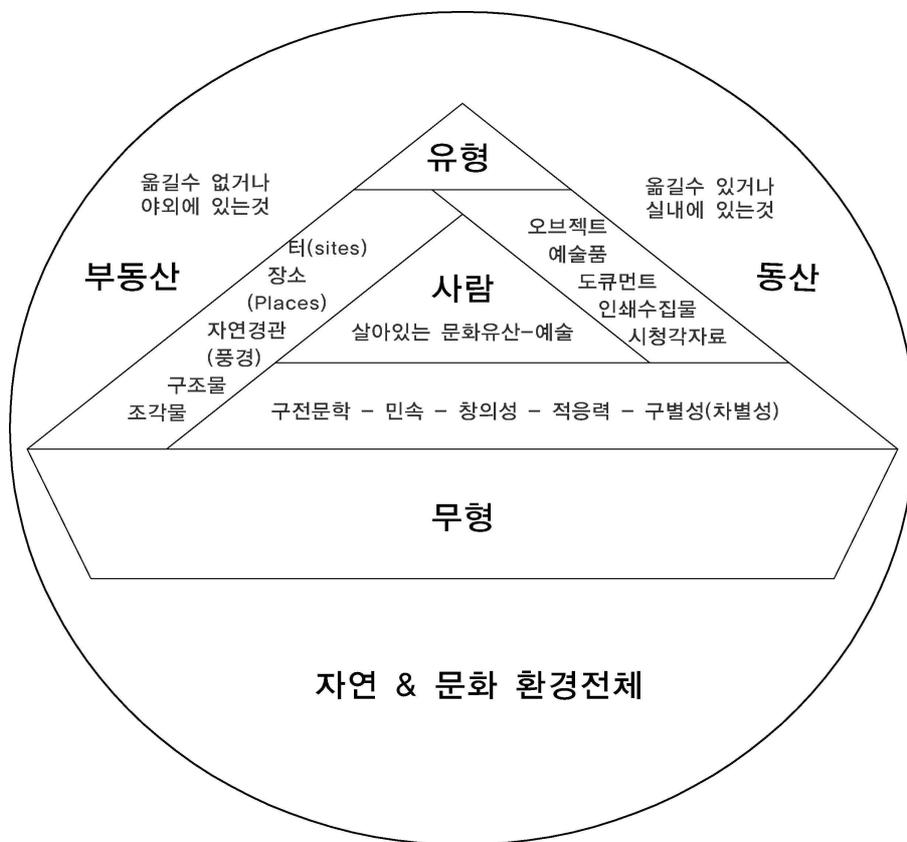
현대적 개념의 생태 박물관은 환경과 조화되고 환경에 대한 역할을 달성한다는 뜻에서 '확장된 의미의 박물관'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은 광의의 개념으로 자연 환

2) 기초 자료는 해녀박물관편,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2008.

3) 최효승, 『청주국제건축디자인워크샵』, 청주대학교건축공학부, 2004, 7쪽. 천진기, "민속박물관과 현대 생활자료", 『한국민속학』 45, 2007, 302쪽 재인용.

경은 물론이고 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무형의 지역 유산, 산업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천진기는 생태박물관(Eco Museum)을 <생활·문화·환경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 <지역 통째로 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 <지역 정체성 박물관>, <지역 공생박물관>, <전 지역이 박물관>, <주민이 모두 학예원인 마을 만들기>,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등으로 표현하면서 생태박물관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둘러싸고 있는 문화, 환경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영문 표기로는 Community Museum, Cultural park, Heritage program, Eco Museum, Neighbourhood Museum, Open-air Museum 등으로 보고 있다.⁴⁾



생태박물관의 구성요소(아마갈라 교수, 『하롱베이생태박물관』⁵⁾ 발표자료

이러한 생태박물관 개념의 마을들은 고유의 역사적 전통을 지키면서 사람, 환경, 문화를 만나기 위해 열린 장소로서의 박물관이어야 한다.

결국 해녀 생태박물관은 '해녀박물관'의 '확장된 의미의 박물관'으로, 삶과 자연의 축소판으로 바다와 해녀마을의 모습, 어촌의 풍경, 주거생활, 자연생태인 바다어장

4) 천진기,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결의 열쇠, 생태박물관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2006.

5) 천진기, 윗글, 재인용.

의 생태, 이밖에도 바다로 가는 도로와 탈의장, 불턱, 해신당, 곳의레, 해녀노래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눈여겨 볼 수가 있다.

더불어 야외 박물관에 대한 안목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자연환경으로 생태계와 더불어 열린 장소로서의 '장소의 가치'가 중시된다.⁶⁾

해녀 에코뮤지엄의 장소는 해녀들이 작업장인 바다공간이 포함된다. 해녀들은 바다공간의 바다어장 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해녀들은 늘 작업시기인 '물때'에 맞추어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작업 공간에 대한 숙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장을 발견하여 성공적인 어로활동을 하고, 목표 장소를 찾고 바다 밑의 지형과 어패류의 판별능력을 키워야한다.⁷⁾ 이때는 육지부에 지표점을 정하거나 혹은 기점을 살펴 자신이 입수하는 바다 위치를 확인한다.

이미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 암초와 같은 바다 지형을 익히고, 바다 환경에 적응하고 바다 밑에 대한 지식을 익히며 자신이 작업하는 장소를 인지한다. 해산물에 대한 바다 어장에 대한 지식은 뛰어난 해녀들이라면 거의 고정적으로 암기되어있다.

바다 어장은 어촌계와 해녀들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공동바당(공동이용), 학교바당(학교교사 신축), 청년바당 (청년회자금 마련), 할망바당(나이든 해녀에 대한 배려), 이장 바당(이장 활동비 마련)등 목적에 따라서도 바다를 관리한다.

해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장소였던 '불턱'은 지금은 탈의실로 바뀌었지만 해녀공동의 의견이 종합되고 정보전달과 의사결정, 물질학습의 장소이기도 하며 회의문화의 원시적 형태다.



<구좌읍 하도리 불턱>

또한 세시행사에 따른 의례와 해녀들의 성소(聖所)인 해신당이 있다.

제주 여성들은 샤머니즘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했다. 해녀의 일은 위

6)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에 대한연구”, 「우암논총」 제28집, 청주대학교대학원, 2006. p.186.

7) 토모야아키미치, 2006, “ 박물관학자의 두가지 생태전략 : 특이성과 적응성”,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해녀박물관 개관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116쪽.

험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샤머니즘은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기초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해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기였다.8)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속신앙 중의 해신당은 해녀들의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며 성소다. 좌정한 신 역시 대부분 바다의 용왕과 관련되는 '요왕(용왕)'이 좌정하거나 '용해국대부인', '용녀부인', '남당할망'과 더불어 주로 뱃선왕이 좌정해 있다.



<종달리 해신당 >

이와 더불어 생업과 함께 생겨난 무형문화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데 현재 해녀의 문화 중 전승보존을 위해 선택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와 유네스코무형유산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이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요왕맞이>

작업과 더불어 나타난 문화는 대표적인 것으로 해녀노래다.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작업 어장으로나 육지 등 출가물질 갈 때 직접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원시어업 노동요다. 해

8) 하라지리히데키, 2002, "일본 식민주의와 제주인들의 성에 따른 역할 변화",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110-111쪽.

녀노래를 통해서 섬사람들의 삶의 존재방식과 노동현장, 제주여성, 제주사람에 대한 정체성 등 지역적 특수성을 살필 수 있다. 노래 속에서는 인간의 원시 본능적 욕구가 선율과 사설을 통해 생생히 표출되고 있고 생의 고난과 극복의 삶을 표현한다.

제주 전역의 영등굿은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를 말하는데, 이 신은 어부나 해녀들에게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요신으로 음력 2월초하룻날에 들어와 2월 15일에 우도를 통해서 나간다. 음력 2월 14일에 치러지는 제주 칠머리당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은 규모도 크고 복잡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 제주도 해녀문화의 센터 해녀박물관 9)

해녀박물관이 위치한 곳인 항일의 기념지라는 구좌읍 하도리는 역사적 의미와 해녀들 생업이 왕성한 곳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띤다. 해녀항일기념공원에 자리한 해녀박물관은 2006년 6월 9일에 개관하여 해녀들의 문화를 집대성하고 작업 도구 및 옷 등 해녀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하고 보존되고 있다. 또한 해녀박물관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언론과 방송에서 많은 관심과 초점의 대상이 되었다.

박물관의 주요시설을 보면 연면적 4002평방미터(1,210평) 지상4층의 건물로서 주요 시설인 영상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어린이체험관, 전망대, 뮤지엄샵, 야외전시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일 평균 400-500명의 관람객이 찾아와서 연 관람객 20만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해양문화의 산실로 이어도 및 해양문화 홍보와 교육을 위한 시설을 클러스트화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전시품으로 해녀물질 도구 및 전통의 해녀복, 불턱, 역사문헌 자료와 무형의 문화유산 자료인 무속의례, 해녀노래, 그리고 어촌의 민속자료 등 해녀문화 전반이 전시되어 있다. 해녀도구로는 '테왁', '망사리류', '중개호미', '호맹이류', '빚창', '소살', '죽세눈', '췌눈', '단안경', '본조갱이', '물구덕' 등이 있는데, 해녀들은 도구를 작업장소인 바다지형의 특성과 해산물에 맞게 변용하며 사용했다.

9) 해녀박물관 기본 자료 인용.



< 박물관 전시 중 물소중이 입은 해녀모습 >

특히 부력을 이용한 테왁과 해산물을 담은 망사리는 채취한 패류나 해조류에 따라 크기와 짜임이 다르고 호미류나 전복을 따는 빗창 역시 바다어장 지형에 따라 길이나 크기를 달리 변용하여 사용했다. 채취하지 못한 전복을 다시 들어가서 따기 위한 표식으로 이용되는 '본조갱이'도 해녀들 민속적 지혜의 산물이다.

1970년 초 일본에서 고무옷이 들어오기 전에 오랜 기간 입었던 해녀들의 전통 옷인 물소중이와 물적삼, 물수건, 물모자인 까부리, 손에 끼는 손복닥, 겨울철 방한용 복인 뚜데기, 물조끼, 뽕돌허리띠라고도 하는 연철 등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물소중이와 같은 전통 해녀복은 견고성과 더불어 작업 시 능률적이고 편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¹⁰⁾ 과학적이고 생리적이기도 하다. 옆트임이 되어 있어 입고 벗기에 편하며 몸의 체중 변화나 체격에 맞게 조절하는 융통성도 보여준다. 그리고 허리와 가슴의 몸을 싸주면서 보온력이 높아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 속옷으로도 종종 입었다. 또 수온을 체감하기에 용이하고 생리현상 해결이 용이하다.

머리칼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서 쓰는 '물수건'과 상어와 같은 위해물(危害物)을 물리치는 방편으로 머리에 쓰는 '이멍거리'사용도 창조적인 결과물들이다.

또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민속공연 및 해녀축제에서 해녀 관련 무형문화재인 해녀노래나 영등굿, 잠수굿 공연을 하고 있다. 또 고유문화 전통에 따라 매 주마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민속공연을 실시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으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녀항일기념 장소의 역사성, 공익적으로 이용되어 온 바다 어장들은 '기억되는 장소'로서 더욱 박물관의 의미를 더한다.

10) 高富子, "濟州島 女人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濟州島研究』 제3집, 1986.



<해녀축제>

4. 해녀생태마을 지정과 가능성

해녀생태마을 지정은 해녀들의 생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녀에 관한 전통 문화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현재 많은 수의 해녀가 생업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 따른 문화 역시 지속적으로 보존·전승될 가능성을 지니는 곳으로 해녀들의 생업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들 중에서 구좌읍 하도리와 성산읍 온평리, 우도면을 선택해서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마을 해녀들은 자신들 삶을 기반으로 외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생업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바다생태에 대한 민속지식도 체계화하고 재정립하여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리는 천혜의 바다자원을 간직한 마을이면서도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해녀 문화 전통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와 하도리 토끼섬의 문주란 자생지, 황근 자생지와 같은 자연생태와 더불어 선사유적지, 별방진 등 역사 유적들도 잘 남아있는 곳이다.

가. 하도리 해녀수와 생업 전망

하도리는 일곱 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는데, 동쪽으로는 창흥동, 동동, 신동, 면수동, 서문동, 서동, 굴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곳은 해녀들의 여성 나잠업이 왕성하여 주로 농업보다는 해녀들 나잠업으로 생업을 이끌어간다. 곧 반농반어의 생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바닷물질에 더 치중하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하도리에는 7개동의 잠수회의 조직이 있는데 각동마다 잠수회장이 있고 하도리

전 지역의 해녀를 대표하는 총 잠수회장이 있다.

하도리 바다어장은 해안별 6.2킬로, 직선거리 6킬로로 제주도 다른 부락 중 가장 길다. 바다의 면적도 579 헥타아르로 아주 넓은 편이다.

하도리 해녀들은 소라나 전복을 따는 '헛물예'와 해초인 천초 작업이 주를 이룬다. 물론 '상군' 혹은 '고무옷 입는 사람' 이라고 불려지는 능력 있는 해녀들은 깊은 물속에서 소라, 오분자기, 성게 등을 캐지만 이들은 해초인 천초 작업을 할 때도 참여 한다. 이들 중에는 50~60대의 해녀들이 중심이 되어 헛물예에 참여한다. 천초(우뭇가사리) 작업 시에는 나이든 해녀들이나 물질이 서툰 젊은 해녀들도 참여한다.

해녀들의 채취물과 그 수량은 아주 많은 편이다. 가구당 평균 해산물 소득이 2천백5십삼만원이나 된다(2005의 예). 그리고 제주해녀의 생산고가 150억인데, 하도리 해녀들은 15억을 번다. 2008년도 채취한 패류와 해초의 판매량을 보면 톳(47,130킬로), 천초(55,740킬로), 감태(10,848킬로), 소라(47,758킬로), 전복(68킬로), 오분자기(4,451킬로), 성게(892킬로), 해삼(1,203킬로), 문어 (1, 899킬로)가 잡혔다.

바다 어장밭인 경우도 동동의 '붉은등대' 쪽에는 소라가 많이 난다. 천초는 '서문동'과 '굴동', '신동', '동동' 까지 양도 많으며 품질 면에서도 뛰어나다.

어촌계가 모든 어장관리와 해녀들의 생업을 관리하지만 각 동별로 해산물 수매와 탈의장 관리를 맡은 대행인이 지정되고 있다.



<하도리 해녀작업>



<생산된 해산물 수매>

전체적인 하도리의 해녀 수와 연령 대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¹¹⁾

11) 해녀통계는 2007년도 해녀 박물관 자료.

연령	헛물예		천초		계	
	해녀 수(명)	비율(%)	해녀 수(명)	비율(%)	해녀 수(명)	비율(%)
30~39세	-	-	4	1.8	4	1
40~49세	16	9	16	7.2	32	8
50~59세	54	30.5	20	9	74	18.5
60~69세	73	41.2	59	26.6	132	33.1
70~79세	31	17.5	99	44.6	130	32.6
80~89세	3	1.7	23	10.4	26	6.5
90~99세	-	-	1	0.5	1	0.3
총	177	100	222	100	399	100

전체 해녀 수는 399명이며 이중 50대 미만의 해녀는 27.5%이고, 대부분 60-70대의 해녀는 65.7%이다. 나이 든 80대, 90대 해녀들도 6.8%에 이르고 있다.

나. 해녀항일의 역사

1930년대 들어오면서 해녀들에 대한 일제 식민지 수탈은 극심하여 졌고, 해녀들은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되자, 1932년 1월 7일 구좌면 하도리 해녀 300여명이 세화오일장에 모여서 일제의 착취에 저항하여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고, 8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일제 당국을 규탄하였다.

그해 1월12일 대구씨도사가 세화경찰관 주재소를 순시중인 것을 알아차린 구좌면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 연평리, 성산면 성산리, 시흥리, 오조리 일대 해녀 천여명이 현 세화파출소 동쪽 500여 미터 지점에 있는 속칭 연두막(현 해녀박물관 자리) 동산에 집결하고 마침 세화주재소를 순시중인 제주島司(田口)를 포위하여 해녀들의 요구사항 8개항을 제시하였다. 해녀주동자 부춘화, 김옥련 등이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에 격렬하게 투쟁하는 항의문 낭독하였다.

문무현, 김태륜 등의 청년 지식인들은 구좌읍 하도보통학교 하도강습소를 열었다. 이 곳에서는 『농민독본』, 『노동독본』 등의 계몽서를 배우고 한글, 한문뿐만 아니라 저울 눈금 읽는 법도 가르쳤다. 신재홍, 강관순, 문도배, 오문규, 김순중 등을 중심으로 한 혁우동맹원들은 일제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해녀들의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야학을 통해 해녀들을 학습시키는 등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의식화, 조직화하는 배후 역할을 수행하였다.

강관순은 신문기자로 문필력이 뛰어나서 옥중에서 해녀의 노래를 작사하고 같은 동지였던 오문규를 면회 왔던 오문규의 처 홍무향편에 몰래 유출시켰다. 노래는 제

주 전 지역의 해녀들에게 퍼뜨려 일제의 침탈에 저항 항일 독립투쟁의 열화를 불태웠다. 해녀의 노래는 일제 암흑기에 제주도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국을 잃어버린 비탄을 대변한 절규였다. 이로 인하여 강관순은 더욱더 심한 처벌과 고문에 시달렸다.



<해녀항일 기념탑>



<해녀항일에 참여했던 5인 사진>

1931년부터 1932년 제주도 해녀 투쟁은 연인원 1만 7000여명의 참여와 대소 집회 및 시위횟수 연 230여회,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만이 아닌 일제 식민지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항일 운동이다. 1932년에 일어난 해녀항일의 역사는 제주여성들의 자존과 생존을 위한 거국적인 여성 항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보존 가능한 해녀문화

하도리는 해녀항일의 역사적 자취와 함께 해녀들의 전통적인 문화가 잘 남아있다. 특히 하도리 면수동과 서동에는 오래전에 돌로 만들어 사용하던 불턱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도리의 '각시당'에는 남당하르방, 남당할망, 갯용녀부인을 모시고 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번씩 각 동네마다 각시당으로 와서 큰당의 신을 모셔다가 당굿인 잠수굿을 하였고, 매해마다 음력 2월 13일에 해녀조업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의 성격이 강한 영등손맞이를 행한다. 잠수굿이나 영등굿은 해녀들의 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재물준비나 모든 의식을 치르기 위해 드는 비용은 해녀회에서 공동으로 치러져서 생업과 의례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당의 맏인 심방 고순안(62세)은 이당의 역사를 전하고 아직도 고유한 무속 의례 형태를 보존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무속 의례를 행하고 있다.



<하도리 영등굿>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온평리는 어촌계 조직구성이 단단하고 당 의례 등의 해녀 문화가 잘 남아있다. 해녀들의 무속의례인 잠수굿이 남아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해녀수가 많으며 (50대 미만 36.2%) 자원관리가 잘되어 해녀문화 보존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리고 문화자산 중에서 제주 삼성신화 중 세 처녀의 전설과 탐라국의 개국신화와 이와 관련된 유적지인 황로알 바닷가와 해녀들의 '학교바당'의 역사를 전하는 해녀공로비, 해녀전설 등이 남아있다.

1) 해녀의 수와 바다어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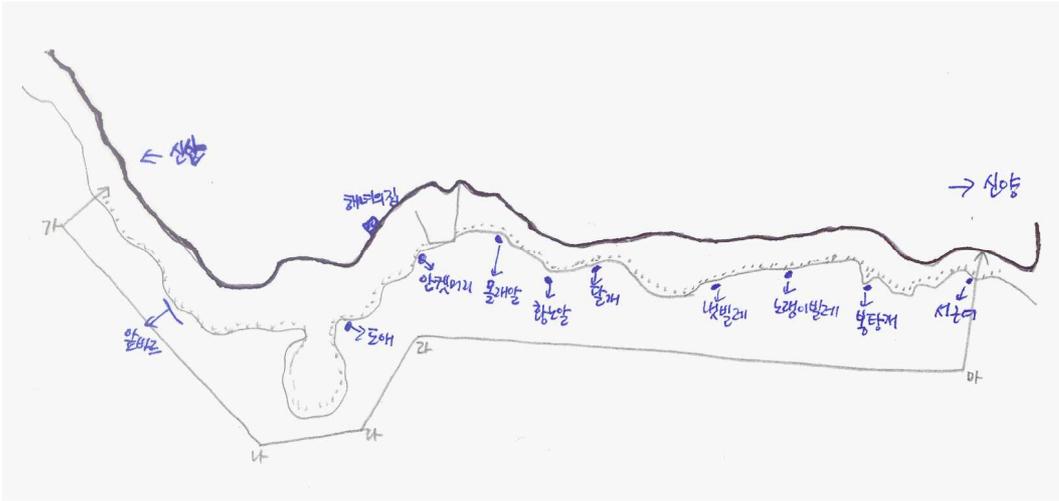
○ 온평리의 해녀수 12)

연 령	해녀 수(명)	비율(%)
30~39세	-	-
40~49세	20	12.5
50~59세	38	23.7
60~69세	50	31.3
70~79세	46	28.8
80세이상	6	3.8
총	160	100

온평 바다는 해안선을 따라서 신양 경계선을 시작으로 바다 어장인 서근여-봉탕개-노랭이빌레-넛빌레-달개-황날(황노알)-몰래알-안케머리-여마진개-돌개- 신산경계선

12) 2007년 6월 해녀박물관 통계

까지 6킬로 길이의 바다 어장이 펼쳐져 있다.



<온평리 해녀작업어장도>

상시로 작업하는 해녀는 160명이며, 툇 작업시에는 어촌계원 252명 전원이 작업한다. 해녀들은 '조금'에서 '여덟물' 까지 한 물때에 9일간 작업하는데, 자율관리업에서 양식장으로 지정된 '안개머리'와 '돌개'에는 종패 작업으로 오분자기 15000미, 전복 45000미를 투여하였다.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양식장에는 1년에 한두 번 입어를 하는데 8월 명절과 정월 명절에 제수 비용으로 쓰도록 작업을 한다.

수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는 것은 소라를 개인적인 사매를 금지하고 전량 계약상인을 지정하여 입찰단가를 정하고 하동, 중동, 상동별로 수집 장소를 지정, 어촌계 계약 상인에게 판매를 한다.

온평리 어촌계는 법인 어촌계였으나 1981년 법을 개정하여 비법인 어촌계로 바꿨다.

마을 어업권자인 온평리 어촌계는 해당 구역 행정의 장(시장, 군수)에게서 '어업면허증'과 어업자원 보호법에 의한 '허가증'을 받는다. 어촌계장은 해녀들과 '마을어장 행사계약서'를 10년 단위로 계약한다. 해녀들은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판매액의 5%를 행사료로 공제하고 정산을 매월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해산물은 어촌계를 통해서 계통출하 및 공동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해녀 자신이 가진 어업권의 행사 관리권은 타인에게 양도 매매할 수 없다

어업권 행사자인 해녀들은 어장관리에 필요한 불가사리구제, 어장 정화사업 등 마을 어장 관리 규약이 정하는 어장관리 사업을 위해 소집에 응해야하고 여러 규칙들을 위반하였을 시 어촌계와 해녀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소를 소속어촌계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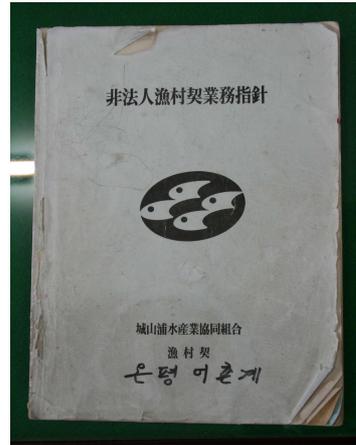
협동 양식 어장 관리 규약이 있고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엄격하다. 어촌계원 전원이 참여하는 어장정화 사업, 불가사리 구제 등 공동 작업에 불참할 때

(제13조 1항)는 1차는 경고, 2차는 입어정지 3일, 3차는 입어정지 10일, 4차는 계약해지다.

또 포획채취 금지기간(제14조) 및 금지 채장(제15조)을 위반한 때도 1차는 정지 15일, 2차는 정지 30일, 3차는 계약해지다. 이외에 생산된 소라를 계통판매 하지 아니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정지 10일, 3차는 정지 20일 4차는 계약해지가 된다. 1차 정지는 1일 3만원, 2차 정지는 1일 4만원, 3차 정지는 5만원의 과징금을 내어야 한다.



<초기 온평리 어촌계 사무실>



<비법인어촌계 지침>

2) 학교바당과 해녀공로비

성산읍 온평리에는 유일하게 ‘학교바당’이라고 불리는 바다 어장이 있다. 그리고 온평 초등학교에는 ‘해녀공로비’가 있다. 해녀들이 온평초등학교 신축공사와 재건으로 이루어낸 사회봉사 헌신에 대한 공덕비다.

온평초등학교는 1946년에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학교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또 1950년 실화로 전 교실이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다. 성산읍 온평리 해녀들은 신산리와 신양리 양쪽 경계 바다를 ‘학교바당’으로 삼아 미역을 채취해서 수입 전부를 학교건립 자금으로 헌납 1951~1958년에 걸쳐 학교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온평리 해녀공로비>



<미역채취- 사진 서재철>

● 제주시 우도면

1) 해녀 수와 생업전망

우도는 전통적인 해녀 생업 마을로 다른 지역의 해녀 집단처럼 반농, 반어의 어업 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농사보다는 어업에 전념하고 있는 편이며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녀 나잡업에 더욱 의지해 온 편이다. 인구비례에 의하면 해녀의 수가 월등히 많은 편으로 60대-70대의 해녀가 대부분이며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화 추세다. 주민들이 제주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업하면서 과거의 전통 해녀 사회가 많이 와해되었지만 아직도 잠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해녀 생업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¹³⁾ 다음과 같다.

연령	해녀 수(명)	비율(%)
30~39세	5	1.5
40~49세	35	10.2
50~59세	62	18.1
60~64세	36	10.5
65~69세	63	18.4
70세 이상	142	41.4
총	343	100

우도의 전체 해녀 수는 340명이다. 해녀들은 70대 이상이 4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극히 고령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50대 미만의 해녀는 29.8%다.

2) 우도의 해신당과 무속신앙

동천진동의 돈짓당에서 공동으로 영등송별제를 하고, 심방을 데려다가 요왕제(돈짓제라고도 함)를 지내고 짚으로 만든 배를 띄워 보낸다. 단독으로 가서 재물을 올리고 정성을 다한 후 요왕지를 드린다. 하우목동에서는 정월 14일에 신과세제를 지내고 액막이를 한다.

우도의 당과 무속의례로는 동천진동-돈짓당(영등굿) 서천진동 당동산 종달잇당(신과세제, 영등제, 백중제), 영일동-돈짓당(용왕제), 비양동-똥비양돈짓당(정월

13) 2006년. 12월 해녀박물관 자료통계

대보름날), 하고수동- 돈짓당(뱃고사), 하우목동-돈짓당(영등굿)이 있다.



<우도의 영등굿>

3) 바다어장의 관리

우도의 해녀 어장은 우도 해안 전역이다. 각 리마다는 어촌계가 있고 각동에는 자연부락별로 바다어장이 구분되어 있다. 어촌계가 수매하는 일을 도와주는 한사람의 '상고' 혹은 '수집인'을 지정한 후 해산물을 공동으로 모아 어촌계가 전체적으로 수집 판매하고 해녀들을 관리한다. 또한 바다에 관하여 규약을 정하여 작업한다.

특히 공동으로 작업하는 바다는 80년대까지는 공동체로 어장관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두개 마을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공동바다가 있는데, 전흥동과 주흥동, 주흥동과 삼양동의 해녀들이 같이 작업한다. 그래서 주흥동 해녀들 30명은 '조금'에서 '두물'까지 15명씩 나뉘서 전흥동과 삼양동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 캐어내는 해산물은 천초, 오분작, 성계, 소라다.

과거에는 공동의 이익금 또는 청년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비양동의 청년바다, 이장의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한 이장 바다 등이 있었다.

4) 동별 공동체 규약

해녀들의 공동체는 어촌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어촌계에는 서로 간의 약속인 규약이 있고, 리 단위 어촌계에 속한 자연부락별의 동이 해녀물질 작업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천진리에는 동천진동 서천진동이 속하고, 서광리에는 상우목동, 하우목동, 중앙동, 오봉리는 주흥동, 삼양동, 전흥동, 상고수동, 하고수동, 조일리는 비양동, 영일동이 속해있다.

우도의 <하우목동의 규약>에는 어촌계와 연결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어장 관리 및 경계, 금채기 규정, 우뭇가사리 채취할 때 병고나 연유로 말미암은 대리 채취규정, 조업규정, 농번기 입어금지, 감시원 규정이 있다.

규약 중에서 입어권의 획득과 상실에 관해서는 중요하다.

‘34조’는 입어권의 상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준회원으로 입어 행사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혼인으로 인하여 타지방에 거주 하는 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아니 된 자에게는 당해년도 친초 채취는 허용하기로 하고, 타지방에서 혼인하여 입주한 자는 다음 년도부터 채취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등 여러 가지 규약들을 정하고 있다.

●기타 지역

이외에도 해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불턱이 남아있어서 잘 보존되는 곳은 성산읍 신양리이고, 또한 특히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면서 관광지이며 해녀물질 작업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성산읍 성산리 ‘우묵개’다.

이외에도 구좌읍 동김녕리는 매해 음력 3월8일 잠수굿을 중심으로 해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잘 발달되었으며, 잠수회 조직이 단단하게 잘 조직화 된 곳이다. 그리고 해녀노래나 멸치후리는 노래와 같은 어업노동요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동김녕리잠수굿 요왕맞이>

※ 참고문헌

하도 향토지발간위원회, 『하도리지』, 2006.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에 대한연구”, 「우암논총」 제28집, 청주대학교대학원, 2006.

방한영,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이현아, “현대사회에서 뮤지엄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03.

김영숙, “에코뮤지엄 개념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가능성 연구”, 경희대학교, 2003.

최재희,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한 공예박물관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2002.

천진기, “민속박물관과 현대 생활자료”, 『한국민속학』 45, 2007.

천진기,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결의 열쇠, 생태박물관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2007.